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최고 김치 명인을 찾습니다”

제33회 광주김치축제 The 33rd Gwangju Kimchi Festival

대통령상 시상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2026. 10. 22. (목) 오전 8시 30분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육관

참가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08. 24.(월) ~ 09. 03.(목) 17:00까지
-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 참가신청서 C로보: <http://kimchi.gwangju.go.kr>
-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처: gkimchi33@wikim.re.kr
- 우 편 접수처: [우 617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구 김치로 53, 제33회광주김치축제 누리집
- 서류심사일: 2026. 09. 11.(금) 14:00
- 심사 2026. 10. 23.(금) / 광주김치축제 개막식

대회개요

- 대회명 제33회 광주김치축제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 일시 1차 경연 2026. 10. 08.(목) 08:30~16:00
2차 경연 2026. 10. 22.(목) 08:30~18:00
- 장소 광주김치타운 다목적체육관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1인 1팀)
- 경연일정

구분	일시	경연종목
1차 경연	2026. 10. 08.(목)	가분김치 자유김치
2차 경연	2026. 10. 22.(목)	배추김치 자유 선택김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4Kjm 생경전지연구소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포스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배추김치·선택김치 2개 종목으로 참가자 모집

서류심사·본경연 거쳐 최종 5팀 선정해 시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최고 권위의 김치 경연인 ‘2026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참가자를 8월24일부터 9월3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전국 김치 요리경연대회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대회로, 전통성과 전문성은 물론 참가자의 창의성과 산업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연은 지정종목인 ‘배추김치’와 자유종목인 ‘선택김치’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배추김치’ 종목은 주어지는 기본 원재료만을 활용해 재료의 조합, 맛, 숙성 등 전통 김치 전문가로서의 김치 제조 역량을 평가한다.

‘선택김치’ 종목은 가문이나 지역에서 전승돼 온 김치 또는 참가자가

직접 개발한 김치를 시연해 김치의 독창성, 우수성, 산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9월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9월11일 경연에 참가할 최종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20개팀은 10월8일 예비 경연과 10월22일 본 경연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상금 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상금 1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상금 100만원) ▲전남통합특별시장상 2점(상금 각 50만원) 등 총 5개 팀의 수상작을 시상한다.

수상작들은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3회 광주김치축제’ 행사장에 전시돼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대한민국 김치의 전통과 창의성을 알릴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33

회 광주김치축제 누리집(<http://kimchi.gwangju.go.kr>) 또는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www.wikim.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구속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전국의 김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김치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국내 대표 김치경연의 장”이라며 “김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솜씨를 선보이고 대회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전통 김치의 맛과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김치 문화를 선보일 참가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수상작은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며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경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경남 거제, 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 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복구와 수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1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3일(일) 밝혔다.

성금 기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세탁구호차량 3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돕

는다. 또한 수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이 피해 차량을 입고하는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주고,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 총 할인금액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 원, 상용 최대 500만 원 /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지원)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금과 구호차량 투입 등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25년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5년 경상권·울산 산불, 2023년 집중호우, 2023년 강릉 산불, 2022년 집중호우,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등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탁구호차량은 수해로 오염된 의류와 침구류 등을 세탁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차량 수리 지원을 통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경제

적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01 신선

정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02 신속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03 신뢰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